세계가 본

조선민족의 문화유산들

주체107(2018)년

세계가 본
조선민족의 문화유산들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7(2018)년 8월

머 리 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상들은 고대로부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으며 동방문화를 꽃피웠습니다.》(《**김일성**전집》 제1권 554페지)

인류력사는 100만년 이전부터 시작되였다.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왔으며 이 과정에 고귀한 인류문명과 문화전통을 창조하였다.

오늘 세계에 존재하고있는 200여개의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은 모두 자기의 력사와 문화, 전통을 가지고있으며 대를 이어가며 계승해나가고있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는 해당 나라와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준다. 또한 장구한 력사적기간을 걸쳐 창조된 민족문화유산은 민족전통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민족의 우수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된다.

닐강문화, 인두스강문화, 량강문화, 황하문화 등과 함께 인류최초의 문명중의 하나인 대동강문화를 창조한 조선민족도 자기의 력사와 훌륭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민족은 자기의 슬기와 지혜, 재능으로 훌륭한 민족문화를 창조하였으며 많은 의의있는 발명품들과 창조물들을 남김으로써 인류문명발전에 적극 기여하였다.

조선의 금속활자, 측우기, 거북선 등은 세계최초의 발명품들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으며 조선민족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이 책에서는 조선민족이 력사적으로 창조하고 계승발전시켜온 이름난 물질문화유산들 가운데서 그 일부를 소개한다.

차 례

미술유산

민속유산

상식

1. 세계최초의 창조물들

금속활자

조선민족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리용하였다. 조선민족은 고려시기(918년-1392년)였던 12세기 전반기에 벌써 동, 주석, 연, 규소, 아연 등 금속을 녹여 활자를 만들어 리용하였다. 이것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의 리용이였다. 유럽에서는 네데를란드가 1423년에, 도이췰란드는 1450년에, 처음으로 각각 금속활자를 사용하였다. 1972년 프랑스의 빠리에서는 유네스코(UNESCO)의 주최로 《국제도서의 해》행사가 진행되였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책의 력사》라는 주제의 전람회가 열리였는데 여기에 조선의 력사책의 하나인 《직지》(하권)이 전시되여 세계최초의 금속활자인쇄본으로 인정되였다.

전람회를 통하여 조선이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발명국이라는것이 실물로써 확인되였으며 세계는 조선민족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리용한 민족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𩑠

이마 전

嫥

사랑 전

주체 45(1956)년 만월대 경전 서쪽 300m 지점에서 발굴

주체 104(2015)년 11 월 만월대 서부건축군 남쪽에서 발굴

《직지심경》

상식: 세계최초의 항공기-비거

임진조국전쟁시기(1592년-1598년) 창안리용된 비거는 사람이 타고 비행을 실현한 세계최초의 항공기이다.

비거는 높은 령마루나 산성같은데서 활주시키면 날개에 의해서 얻어지는 뜰힘과 바람주머니에서 내쏘는 공기의 반작용힘에 의해 떠오르면서 비행하게 되여있다. 임진조국전쟁의 초시기에 령남(경상남북도)지방의 어느 한 성이 왜적들에게 포위되였을 때 4명의 군사가 비거를 타고 30리를 비행하여 통신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현대 비행기의 조상으로 전해지는 라이트형제(미국의 항공기술자형제)가 1902년 쌍엽활공기를 시험제작하여 1903년에 첫 비행을 성공한것보다 300년이나 앞선것으로서 조선의 선조들이 세계최초의 항공기를 만들었던것이다. (《려암전서》 권 18차제)

측우기

조선민족은 1441년에 벌써 금속제측우기를 만들어 강우량을 재고 기상학과 수문학을 연구하였다. 당시 다른 나라들에서는 땅속에 스며든 비물의 깊이를 가지고 강우량을 측정하였지만 조선사람들은 금속제측우기를 리용하여 과학적으로 비내림량을 측정하였다. 측우기는 높이가 약 40cm, 직경은 약 16cm의 쇠통이다. 유럽의 이딸리아에서는 1639년에 처음으로 측우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상식: 세계최초의 첫 시한탄-비격진천뢰

비격진천뢰는 16세기의 이름난 무기기술자인 리장손이 창안제조한 세계최초의 신관장치가 달린 시한탄이다.

력사문헌 《징비록》에는 《비격진천뢰는 이전에는 없었다. 군기시의 화포장공인 리장손이라는 사람이 창안한것으로서 이 진천뢰를 대완구의 아구리에 넣어 쏘면 5백~6백보까지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는데 잠시후 속에서 불이 일어나면서 폭발한다. 적들이 이것을 가장 무서워한다.》라는 글이 씌여져있다.(《징비록》 권1)

비격진천뢰는 1592년 9월 왜적에게 일시 강점되였던 경주성을 되찾는 싸움에서 그 위력이 파시되였다.

적들은 숙소근처에 떨어진 비격진천뢰를 보고 뭔지 모르고 모여들어 구경하다가 그것이 터지는 바람에 30여명의 무리죽음을 내고 혼비백산하여 《귀신의 조화》라고 하면서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비격진천뢰의 창안은 중세 조선과 세계화약무기발전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발명이였다.

거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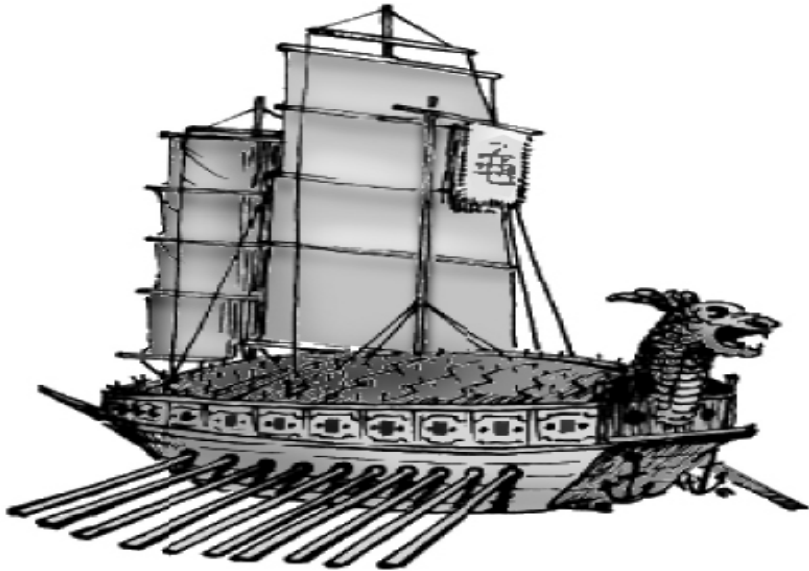
거북선은 벌써 15세기초에 만들어져 임진조국전쟁시기 완성하여 리용된 세계최초의 철갑선이다. 배는 그 모양이 거부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거북선이라고 불렀다. 배의 길이는 35m, 너비는 11.5m, 높이는 5m였으며 좌우 노는 각각 10개, 대포구멍은 70여개였다. 배웃부분은 칼과 송곳을 꽂아 적이 함부로 오를수 없게 되여있으며 룡대가리모양의 배머리는 그 안에 류황과 염초를 태워 전투시 연막을 조성하게 되여있다.

거북선은 속도가 빠르고 매우 든든하여 적선 가까이까지 접근하여 들이받아도 끄떡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1782년에 에스빠냐와 프랑스에서 함선겉면에 강판을 댄 철갑선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군사전문가들과 일반독자 2만 6 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조사에서 거북선은 력사에 이름난 7대 군함들중 하나로 선정되였다.

상식: 세계해군사에 이름을 남긴 명장-리순신

리순신(1545년-1598년)은 16세기 활동한 조선의 애국명장이다. 수군지휘관으로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철갑함선-거북선을 완성하여 임진조국전쟁시기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일본수군을 격퇴하였다.

20세기 초엽 짜리로씨야의 발뜨함대를 격파한 일본의 해군제독 도고 헤이하찌로는 연회에서《진실로 군신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리순신장군일것이다. 리순신에 비유한다면 나는 하사관의 자격도 못된다.》라고 말하였다.

거 북 선

상식: 세계최초의 신문-《조보》

조선에서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5세기초에 세계최초의 신문인 《조보》를 발간하였다. 《조보》는 국내에서 일어난 각종 사변들과 그에 대한 정부의 처리정형 등을 통보한 오늘의 신문형태의 출판물이였다. 당시 신문처럼 제호가 없이 종이에 날자를 쓰고 각종 사변들을 라렬하여 써내려갔다.

19세기말에 와서 《조보》는 근대적신문《한성순보》로 발전하였다. (도이췰란드에서는 1609년, 영국에서는 1622년에 최초의 주간인쇄신문을 발간하였으며 그후 반세기후에야 근대 일간신문들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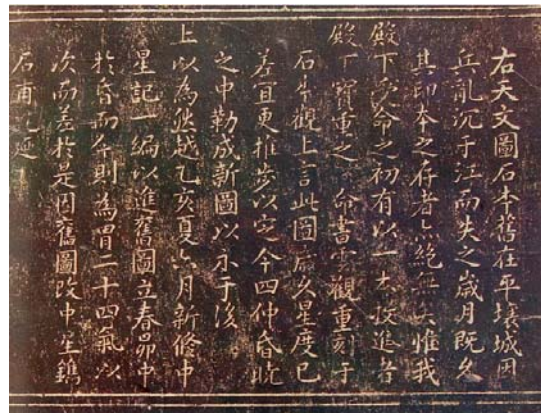
2. 과학기술유산

중세 높은 천문학수준을 보여주는 《천상렬차분야지도》

고구려에는 5세기말~6세기초에 만든 석각천문도(돌에 새긴 별자리그림)가 있었다. 그후 이 석각천문도는 류실되였으나 그것을 대본으로 하여 찍어냈던 천문도 한장이 조선봉건왕조초기에 발견되였다.

이 천문도는 1395년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천상렬차분야지도》이다. 《천상렬차분야지도》는 고구려시기 천문도의 원형을 약간 수정하여 만든것이다. 천문도에는 1 467개의 별들이 282개의 별자리(성좌)에 표시되여있고 적도원과 북극원, 황도원과 경도선이 밝혀져있으며 은하수도 그려져있다.

《천상렬차분야지도》는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한 항성표로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오랜 천문도의 하나로 인정되고있다.

右天文圖石本舊在平壤城因
兵亂沉于江而失之歲月既久
其印本之存者亦絕無矣惟我
殿下受命之初有以一本投進者
殿下寶重之命書雲觀重刻于
石書雲觀上言此圖歲久星度已
差宜更推步以定今四仲昏曉
之中勒成新圖以示于後
上以為然越乙亥夏六月新修中
星記一編以進舊圖立春昴中
於昏而今則胃二十四氣以
次而差於是因舊圖改中星鐫
石甫乙

천상렬차분야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경주첨성대

조선에서 천문기상관측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여왔다.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 서북쪽에 있는 경주첨성대는 7세기 전반기에 세운것으로서 오늘까지 남아있는 천문기상관측유적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것이다. 이 유적은 삼국시기 조선민족의 천문학과 기상학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경주첨성대는 높이가 9.1m로서 기단과 몸체, 그 우에 4각돌 귀틀로 이루어졌다. 기단은 네모나고 몸체는 둥근데 모두 화강석으로 다듬어 만들었다. 웃직경은 약 2.9m, 밑직경은 약 4.9m이며 첨성대를 쌓은 돌의 개수는 362개로서 1년의 날자를 계산하였다. 첨성대는 안정된 기하학적곡선을 이룬 건축물로서 돌사이에 아무런 접착제를 쓰지 않고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운지 천수백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다.

상식: 고려의 천문관측대-개성첨성대

개성시 만월동 만월대 서쪽부분에 있는 개성첨성대는 삼국시기의 첨성대들과 더불어 고려초기에 세워진 천문대이다. 구조는 축대가 있고 그 우에 천문관측기구들을 설치하는것으로 되여있었다.

고려시기 태양흑점에 대한 관측을 비롯하여 천문관측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였는데 그 관측사업의 거점이 바로 개성첨성대였다.

개성첨성대는 고려시기의 천문관측기구로서 2013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시간과 계절을 자동적으로 알려주는-흠경각

1438년에 건설된 흠경각은 하루의 시간과 계절을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종합적인 장치가 설치된 건물이다. 그 안에는 자동물시계였던 자격루가 있었으며 태양의 움직임과 사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작은 형태의 우주모형의 장치가 있었다.

모형의 중심에는 종이로 만든 《산》이 있고 그 주위를 《태양》이 돌면서 계절의 변화와 시간을 자동적으로 알려주게 되여있었다.

흠경각은 수차의 동력에 의하여 수십개의 대상을 독립적으로 정확하게 움직이게 만든것으로써 풍부한 수학, 력학적지식을 보여주는 장치였다.

흠경각은 그 구조장치와 정확성에서 당시까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어느 시간과 계절장치보다도 훨씬 우수한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상식: 세계천문학사상 처음으로 되는 극광과 살별관측자료

1519년 6월 9일 조선사람들은 극광(북극 및 남극지역의 상층대기에서 때때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태양의 빛)현상에 대하여 관측하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세계천문관측사상 제일 처음으로 되는 극광관측 기록이다. 그리고 1664년 10월 9일부터 다음해 1월 초순까지 근 90일동안이나 살별(혜성)에 대한 관측을 진행하였는데 날이 흐려 관측할수 없었던 8일간을 제외하고는 매일과 같이 세밀하게 관측하고 기록을 남겼다.

이에 대하여 외국학자들은 《세계천문학사상 가장 진귀한 무상의 보물》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어느 한 천문학자는 조선민족이 당시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면모》를 갖춘 높은 과학리론수준의 관측자료를 가지고있었다고 찬양하였다.

세계의학계가 주목하는 고려의학

고려의학은 조선민족이 오랜 력사적과정에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전통의학이다. 자연에 풍부한 고려약자원과 침, 뜸, 부항, 안마 등 독특한 방법을 위주로 질병치료를 하는 의학이다.

오늘 고려의학은 세계의학계의 특별한 관심을 끌고있으며 현대의학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일반질병뿐아니라 악성질병들도 얼마든지 고칠수 있는 신기하고 기묘한 고려의학의 성과들을 보고 세계 많은 나라들은 국가보건정책작성과 집행에서 신의학보다 고려의학을 더 중시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제30차 회의결정에 따라 여러 전통의학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한 전통의학계획부를 새로 내오고 27개의 《세계보건기구전통의학협조쎈터》를 조직하였는데 그중 13개는 고려의학과 관련된것들이다. 유럽동맹은 1994년에 질병치료에서 고려의학을 비롯한 동방의학을 리용할데 대한 규범을 제정하였다. 이미전부터 고려의학을 받아들인 나라들에서는 이룩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학회, 협회, 단체들을 조직하고 엄격한 고려의학전문가시험제도를 세우고 고려의학전문가들과 병원들의 수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의학이 가장 발전되였다고 하는 프랑스, 도이췰란드, 영국을 비롯한 유럽나라들에서도 고려의학의 발전과 관련한 중장기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최근 년간 아프리카나라들에서도 고려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있는데 말리, 탄자니아, 가나, 니제르 등 여러 나라들에서는 해마다 많은 고려약재들을 수입하여 치료에 리용하고있다.

상식: 경탄을 자아낸 새로운 외과수술방법

《치종비방》과《치종지남》은 16세기 중엽에 활동한 재능있는 의학자 임언국과 그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외과치료경험을 묶은 고려의학고전책들이다.

임언국에 의하여 개척된 외과수술법은 기술적내용에 있어서 우수하여 의학발전력사에서 의의를 가지였다.

유럽나라들에서는 19세기초까지도 창상이 생기면 끓는 기름을 써서 감염을 막는 방법을 많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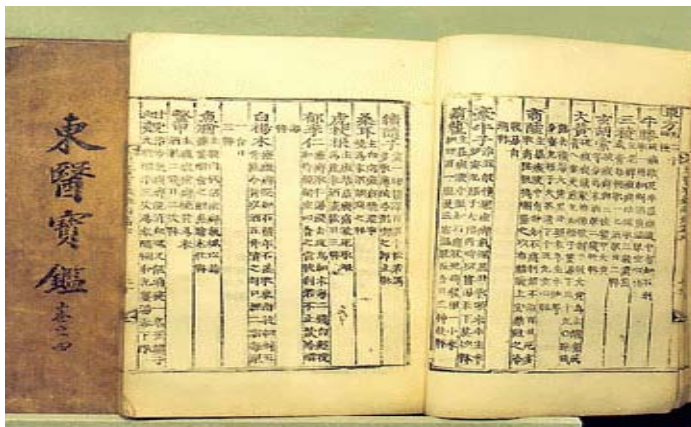
그러나 임언국은 16세기에 벌써 현대외과에서 쓰는 식염수를 창상소독제로 착상하여 리용하였고 농양절개(고름집을 째는것)의 가장 리상적인 방법인 십자형절개법을 연구하여 내놓았다.

하기에 외국의 의학력사가들은《임언국의 업적은 실로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며 동양은 말할것도 없고 서양에 비교해보아도 자랑할만한 성과》라고 높이 찬양하였다.(《조선의학사 및 질병사》일문 1955년)

동방의학의 3대고려의학책

조선의 3대고려의학책이란 《향약집성방》, 《의방류취》, 《동의보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름난 의학자 로중례, 박윤덕 등에 의하여 1431년-1433년에 편찬된 《향약집성방》(85권)은 병종을 모두 959종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치료처방 1만 700여가지와 1 479종의 침구법, 694종의 초약재들을 싣고있다. 이 책은 당시 의사양성교재로 쓰이였고 일본에서도 널리 리용되였으며 오늘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있다.

《의방류취》는 로중례를 비롯한 많은 의학자들이 1445년에 완성한 동방의학의 3대백과사전중에서 첫번째로 꼽히고있다. 이 책은 95개의 병문으로 나뉘여 병의 증상과 치료법을 자세히 서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병들의 원인, 병세와 증후 등 총괄적인 기초리론들을 썼으며 치료법에서도 약물료법, 침구법, 식사료법 등을 기록하였다. 《의방류취》는 유럽에서 최초의 의학백과사전으로 인정받는《의학 및 외과사전》(7권)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고 규모에서 배우 방대한것으로 알려져있다. 《동의보감》은 17세기초까지의 조선의 의학성과를 집대성한 백과전서적인 고려의학책으로서 의학자 허준에 의하여 1596년에 쓰기 시작하여 1610년까지 15년만에 완성하였다. 《동의보감》은 모두 5개편으로 되여있는데 1편(내경편)과 2편(외경편)에서는 인체의 내부와 외부에 걸쳐 해부생리학적내용과 해당 질병들에 대하여 그리고 3편(잡병편)에서는 진찰법과 병의 원인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4편(탕약편), 5편(침구편)에서는 약물치료법, 침구법 및 뜸치료법을 기록하였다. 《동의보감》은 고려의학의 가장 우수한 책으로서 조선뿐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보급되였다. 그후 《동의보감》은 서유럽의 여러 나라말로 번역되여 세계의학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고려체질의학책- 《동의수세보원》

《동의수세보원》은 19세기 동방의술의 대표자이며 4상의학의 창시자인 리제마(1837년-1900년)가 집필한 의학도서이다.

리제마는 고려의학에 대한 오랜 연구와 림상경험에 기초하여 4상의학을 내놓고 그 치료경험과 방법을 집대성하여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였다.

4상의학은 사람들을 체질적특성에 따라 4가지형으로 나누고 그에 따르는 알맞는 처방과 약들로 환자를 치료하는 체질의학이다. 다시말하여 같은 병이라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약처방과 치료를 달리해야 한다는것이다. 리제마의 4상의학설은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널리 연구보급되고있으며 그 과학적리치로 하여 응당한 평가를 받고있다.

상식: 장수보약재-고려인삼

인삼은 세계에 널리 알려진 조선특산의 장수보약재이다. 조선의 북부, 중부, 남부의 깊은 산속에서 자란다. 산에서 자라는것을 산삼이라고 하며 사람이 재배하는것을 인삼이라 부른다.

조선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귀한 약초인 인삼의 재배기술을 과학적으로 확립하여 다량 생산하였다. 고려시기에 다른 나라들에 수출되면서부터《고려인삼》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예로부터 개성지방에서 많이 재배하여왔으므로 《개성고려인삼》, 《개성인삼》이라고도 한다. 인삼은 몸이 허약한데, 병의 회복기, 앓고난 뒤, 육체적 및 정신적피로 등에 보약으로 쓰며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되며 설사하는데, 만성위염, 허탈증, 당뇨병, 가슴두근거림, 잠장애, 저혈압, 성기능장애, 빈혈, 광선병, 간염 등에 쓴다.

최근에는 항암약으로도 효능이 높은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잎, 줄기, 씨도 인삼과 같은 목적에 쓴다. 개성고려인삼은 약재로뿐아니라 화장품에도 원료로 리용되고있어 그 수요가 대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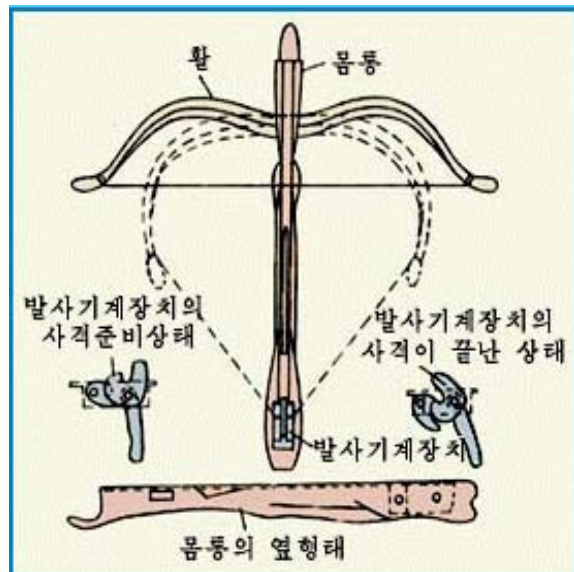
기계활-쇠뇌

고대시기 조선사람들은 기계적장치로 화살을 멀리 날려보낼수 있는 기계활-쇠뇌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쇠뇌는 짧은 활에 발사장치가 있는 나무틀을 수직으로 고정시키고 발사장치를 리용하여 화살을 발사하는 기계활이다. 쇠뇌는 동방에서 제일 먼저 발명되였으며 그후 서유럽으로 전해졌다. 조선민족은 이미 고조선시기부터 쇠뇌를 만들어썼으며 이웃나라들에 쇠뇌를 수출하기도 하였다.

조선사람들이 고대에 쓴 단발식쇠뇌가 평안도의 고대무덤들에서 발굴되였는데 그것을 보면 아래그림과 같다.

그후 련발식쇠뇌가 나오고 그것은 중세 조선의 3개화살련발쇠뇌, 통사식쇠뇌, 화약통사식쇠뇌, 절구포(포의 첫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 쇠뇌들은 그 구조와 동작원리, 가공기술이 우수하여 력사학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쇠뇌들에 오늘날의 무기에서 볼수 있는 조준선까지 새겨져있어 경탄을 자아냈다.

외국의 무기전문가들도《구조가 간단하고 교묘한것으로 하여 현대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오늘의 소총(보총)처럼 동작하니 흥미가 있다. 2천년전의 고안이라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고대시기 쇠뇌와 그 동작원리

다련발로케트발사대의 시원-신기전기

신기전은 15세기초 조선의 선조들이 새로 창안한 불화살이고 신기전기는 이러한 신기전 100발을 련발로 또는 동시에 쏘는 발사대이다. 신기전은 그 크기와 구조에 따라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으로 구별되는데 이런 100대의 신기전을 련발로 또는 동시에 쏘게 되여있는 발사대가 바로 신기전기이다.

신기전기는 1451년 화약의 발명가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신기전기는 보통 화차우에 설치하여 사용되였는데 화차우에 고정축두리를 돌면서 사격의 방위각을 임의로 조절할수 있었고 화차의 움직임에 의해 발사각을 정할수도 있었다. 조선에서 신기전기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200~300년이나 앞서 제작됨으로써 세계적으로 다련발로케트발사대의 시원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신기전기는 소이무기(불사르는 수단)로서 효과성이 좋았는데 임진조국전쟁때 일본침략자들이 강점하였던 경주성을 되찾는 전투와 행주산성방어전투 등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나타났다.

상식: 세계해전사에서 화약무기가 처음으로 사용된 진포해전

진포해전은 세계해전사상 화약무기가 바다싸움에 처음으로 적용된 전투였다. 1380년 8월에 수만명의 왜구가 500여척의 함선을 몰고 금강하구의 진포항에 닻을 내리고 략탈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고려봉건정부는 화약무기로 장비한 100척의 함대를 출동시켰다. 고려수군은 배에 장비한 화약무기로 500여척의 왜구의 배를 모조리 불살라버렸다.

《조선봉건왕조실록》

《조선봉건왕조실록》은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의 정부일지로서 봉건통치의 전기간의 력사적사실들을 빠짐없이 기록한것으로 하여 세상에 알려진 문화유산이다.

《조선봉건왕조실록》은 조선봉건왕조가 존재한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간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있었던 크고작은 사건과 사실들을 27대의 왕대별로, 년, 월, 일순으로 적어넣은 력사기록으로서 그 분량이 무려 900여책, 1 763권에 달한다. 물론 일부 나라들에도 실록이라는 이름을 가진 책이 있지만 519년간의 19만여일에 달하는 력사적기간을 포괄한 왕조실록은 세계적으로 없으며 더우기 일기체형식으로 매일매일 기록한것은 조선의《조선봉건왕조실록》뿐이다.

《조선봉건왕조실록》은 담고있는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하여 조선의 여러 분야의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있다. 조선에서는 1981년까지 방대한 실록전량을 원문그대로 번역하여 모두 400권으로 출판하였다.

상식: 혜초의 세계려행과 《왕오천축국전》

혜초는 8세기 신라의 대려행가였다. 중이였던 혜초는 불교를 깊이 연구할 목적으로 불교가 처음 발생한 인디아로 가볼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당나라를 거쳐 바다로 해서 인디아로 갔다. 혜초는 인디아의 5개나라(5천축국)를 차례로 답사한 다음 페르샤(오늘의 이란)을 거쳐 동로마제국의 중부지역(오늘의 수리아지방)에까지 이르렀다. 그 다음 혜초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빠미르고원을 넘어 727년에 당나라의 수도 장안(서안)에 도착하였다. 그는 10만여리의 머나먼 로정을 답사하면서 그 과정에 느낀것을 책으로 써서 남기였는데 그 책 《왕오천축국전》의 일부가 1910년경에 중국 돈황지방의 동굴에서 발견되였다. 《왕오천축국전》은 당시 5천축국였던 인디아와 그 주변나라들의 정치, 경제, 문화, 풍속과 관련한 기록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사료적가치를 가진다.

민족고전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세나라력사를 종합적으로 담은 조선의 오랜 력사책이다.《삼국사기》는 고려의 대판료이며 학자인 김부식이 국내외의 많은 책들을 참고하여 1145년에 편찬한 책이다.《삼국사기》는 삼국시기 력사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랜 력사책이다. 이 책에는 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자료들과 당시의 지리, 풍속 등에 관한 자료들이 실려있다. 조선의 귀중한 민족고전의 하나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세계가 공인하는 글자-《훈민정음》

《훈민정음》은 세계가 공인하는 조선민족고유의 우수한 글자이다.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다. 1998년부터 2002년말까지 유네스코가 세계의 2 900여종의 언어중에서 가장 적합한 문자를 찾는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훈민정음》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훌륭한 글자로 평가받고있다. 언어학 연구에서 세계최고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포드종합대학이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실용성 등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긴 결과 《훈민정음》이 1등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일본의 오사까시에 있는 세계민족박물관에 세계의 문자들을 전시하였는데 《훈민정음》에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설명문이

붙어있다.

《훈민정음》에 기초한 조선글자는 콤퓨터건반에서 모음은 오른손으로, 자음은 왼손으로 자유롭게 칠수 있는 유일한 문자이다.

1986년부터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창제를 지시한 조선봉건왕조 4대 왕인 세종왕의 이름을 단 세종대왕상을 제정해놓고 인류의 문맹퇴치운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이 상을 수여하고있다.

상식: 《언어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조선어

최근 국제무대에서는 《언어올림픽》이라는 명칭을 단 《언어경기》가 진행되고있다. 《언어올림픽》은 매개 나라들에서 사용되고있는 언어가 세계적범위의 언어분야에 비추어볼 때 어떤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있는가를 겨루는 경기이다.

최근에 진행된 《언어올림픽》에서 19개의 경기종목을 선정하고 최우수언어들을 설정하였다. 그중에서 의성의태어(본딴말)가 가장 많은 언어가 조선어라는것이 인정되여 금메달이 수여되였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조선어는 말소리가 아름답고 류창하며 발음에 의한 형상이 풍부할뿐아니라 어휘와 표현, 문체가 세련되여있는 등 우수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있다.

최첨단수단에 의거하여 산출해낸 통계자료에 의하면 조선어의 의성의태어는 8 800~1만개이상으로, 어휘사용률은 16.9~34.2%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선어는 사물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원만히 표현할수 있는 풍부한 형상적표현력을 가지고있는 동시에 어휘의 산생이 매우 활발한 특성을 가진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세계선수권을 보유하여 패권을 잡게 되였다.

세계적으로 오랜 대학-고려성균관

조선의 고려성균관은 992년에 창립된 세계에서 력사가 가장 오랜 대학이다. 고려성균관에는 당시 국자학, 태학, 사문학, 률학, 서학, 산학 등 6개의 학과가 있었다. 1109년에 무관을 양성하는 학과도 새로 나왔다. 학생정원은 200명정도였다.

고려성균관은 세계적으로 력사가 오래다고 하는 영국의 옥스포드종합대학(1100년경 창립), 프랑스의 빠리종합대학(1150년), 미국의 하바드종합대학(1639년 창립), 일본의 류고꾸대학(1639년 창립)들보다 무려 백-수백년이나 먼저 창립된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오랜 대학의 하나로 알려지고있다.

가장 큰 규모의 목판인쇄물-《팔만대장경》

조선의 《팔만대장경》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고 완성된 대장경으로서 불교경전들과 불교관계서적들을 집대성한 불교 총서이다. 대장경에는 불교의 근본원리와 방도, 불교신자들의 생활규범과 준칙, 불교교리에 대한 연구해석서와 그것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력사, 전기, 어문, 서지 등과 같은 참고자료들이 실려있다.

《팔만대장경》은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간에 걸쳐 판각되였다. 책으로는 1 539종에 6 793권, 글자로 새긴 목판수는 8만여매나 된다. 매

판목의 길이는 67.5cm, 너비는 24cm, 두께는 3.7cm이며 판목마다 23줄로서 1줄당 14자의 글자가 새겨져있다.

《팔만대장경》의 목판과 그것으로 찍은 판본은 현재 전해지고있는 불교대장경가운데서 세계최고로 인정받고있으며 단순히 량의 풍부성보다도 높은 수준의 목판인쇄물로 하여 세계적인 문화재로 찬양받고있다.

일본의 도서 《해동의 불교》(1973년)와 또 다른 일본책인 《해인사장관고》(1943년)에서는 《대장경판목은 오늘 현존하는 유일하게 완전한 장판으로서 조선의 국보라기보다 세계적재보임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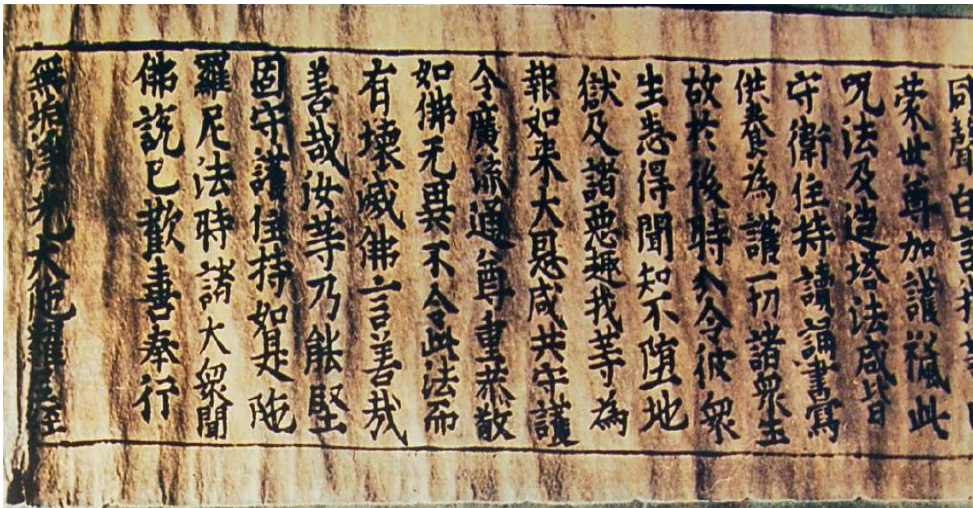
《팔만대장경》은 오늘 세계출판문화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판본의 정확성과 경판의 정교성, 판본의 유구성 등으로 하여 내외가 한결같이 공인하는 세계적인 《표준대장경》, 세계적인 문화재로 간주되고있다.

목판인쇄물-《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세계에서 가장 오랜 목판인쇄물의 하나는 후기신라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다. 이것은 목판에 도장을 새기듯 한자한자 글자를 따서 찍은것이다.

이 목판인쇄물은 8세기중엽에 건설된 경상북도 경주의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이 인쇄물은 8세기중엽 이전의것으로 인정된다. 목판으로 찍은 《무구정광다라니경》은 닥나무로 만든 종이(8cm×52.5cm) 12장을 이어붙이고 그것을 둥글게 말아붙인것인데 그 전체의 길이는 6.3m이다.

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목판으로 찍은 세계에서 오랜 인쇄본의 하나이다. 이것은 조선의 높은 목판인쇄기술수준을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呪法及造塔法咸皆
守衛住持讀誦書寫
供養為護一切諸衆生
故於後時今令彼衆
生悉得聞知不墮地
獄及諸惡趣我等為
報如來大恩咸共守護
令廣流通尊重恭敬
如佛无異不令此法而
有壞滅佛言善哉
善哉汝等乃能堅
固守護住持如是陁
羅尼法時諸大衆聞
佛說已歡喜奉行
無垢淨光大陁羅尼經

상식: 석탄의 자연발화의 원인을 처음으로 발견

석탄에 포함되여있는 류황성분에 의하여 석탄이 자연발화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것은 조선민족이였다. 옛 기록에 의하면 1445년 4월에 녕해(경상북도)에서 땅불이 일어났는데 푸른 연기가 나고 석류황이 타는 냄새가 났다고 하면서 그것은 석탄속에 류황이 포함되여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발견은 유럽에서 석탄의 자연발화원인을 처음으로 연구(1686년)한 영국사람 드르폴로프보다 200여년이나 앞선것으로 된다.

고려비단

조선사람들은 고대시기부터 누에를 치고 고치에서 실을 뽑아 명주나 비단을 생산하였다. 조선의 비단짜는 기술은 우수하여 일찍부터 다른 나라들에까지 전파되였다.

조선사람들이 일찍부터 만들어낸 비단의 질은 매우 높았다.

현재 보관되여있는 고려시기의 비단유물을 분석한데 의하면 비단천의 실이 매우 가늘고 균일하며 천조직은 평조직이였다. 그리고 무늬조직을 결합하는데서 문직기와 자수직기의 원리가 적용되였다.

조선비단은《고려비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웃나라는 물론이고 멀리 아라비아반도의 나라들에까지 수출되여 커다란 환영을 받았다.

상식: 코레아의 유래

자료에 의하면 대식국(아라비아)상인들이 1024년, 1025년, 1040년 세차례에 걸쳐 고려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아라비아상인들의 수는 수백명이나 되였는데 그들은 남방의 열대지방에서 나는 향료와 물감, 상아 등을 가지고 와서 고려의 유명한 비단과 바꾸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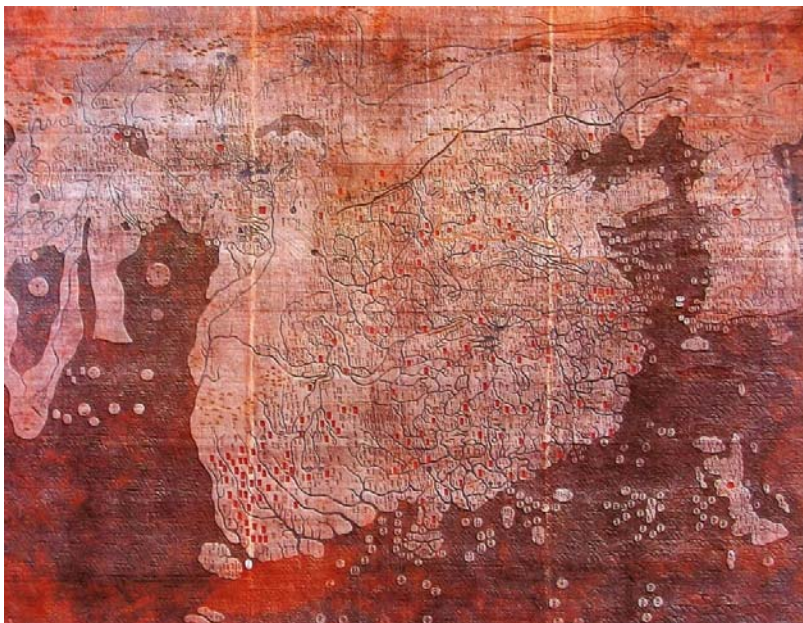
당시 아라비아상인들은 동서방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아라비아상인들의 방문을 계기로《고려(코레아)》라는 이름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조선의 첫 세계지도-《혼일강리력대국도지도》

15세기 조선선조들의 지리에 대한 지식과 시야는 자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규모로 확대되였고 이러한 배경속에서 세계지도가 만들어졌다.

15세기초에 나온 《혼일강리력대국도지도》는 조선과 중국, 아시아의 전지역, 유럽과 아프리카의 일부, 남방의 섬들이 포괄되여있다.

1406년에 리회가 제작하였다. 이미 있던 지도들인 《성교광피도》와《혼일강리도》를 검토한 기초우에서 이 지도를 만들었다. 조선의 지역묘사는 크게 그리고 많은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그리고 일본을 조선보다 작게 남쪽지역에 그린것이 주목된다. 이 지도에는 조선과 중국, 아시아의 전지역, 유럽과 아프리카의 일부, 남방의 섬들이 포괄되여있다. 까스삐해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스리랑카섬, 아라비아반도 등이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되여있다. 이 지도에는 또한 주요 산천과 국가들의 수도 및 력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들과 만리장성을 비롯한 성새들도 표시되여있다. 강과 바다는 물색으로 표시하고 나라의 수도를 비롯한 주민지점들은 색으로 직관적으로 알아볼수 있게 되여있다.

《혼일강리력대국도지도》는 조선에서의 지도편찬력사를 연구하며 15세기 초 조선선조들의 세계 각 대륙과 나라들에 대한 지리적견해를 리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되였다.

김정호와《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는 1861년에 김정호에 의하여 편찬완성된 조선지도이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에 앞서 1834년에 《청구도》라는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에서 부족점을 찾고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김정호는 27년동안이나 로고를 바쳐 마침내 1861년에 《대동여지도》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목판을 새겨 지도를 찍어냈다. 대동여지도는 33m^{2}에 달하는 매우 큰 조선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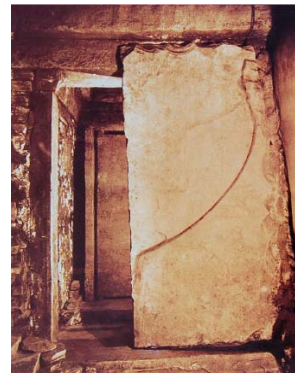
김정호는 이 지도를 모두 22개의 단으로 나눈 다음 그것을 각각 병풍식으로 접어 책처럼 만들었다. 매첩분의 한면은 30cm×20cm인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120리×80리에 해당한다. 대동여지도는 1:16만 2천의 축척으로 된 당시로서 매우 정확한 지도였다.《대동여지도》에는 산봉우리와 산줄기, 강과 호수, 행정중심지와 행정경계선, 도로, 산성과 읍성, 진, 보, 봉수, 창고, 나루를 비롯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자연의 모든 측면들이 일정한 기호로 표시되여있다. 이러한 기호와 글자로 표시된 사항은 무려 1만 1 600여개나 된다. 지도에 표시된 지점들은 그 위치가 정확할뿐아니라 도로를 표시하는 선에는 매 10리마다 점을 찍어놓아 거리를 정확히 알수 있게 되여있다.

3. 건축유산

4세기 동방문화를 대표하는-고국원왕릉

4세기 중엽에 만든 고구려벽화무덤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위치하고있다. 고구려 고국원왕의 무덤으로써 안악3호무덤이라고도 한다.

왕릉은 벽화내용의 풍부성으로 하여 동방문화를 대표하는 세계굴지의 유적으로, 고구려의 위력과 문화의 높이를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간주되고있다. 무덤무지는 방대형이며 그 크기는 남북 약 33m, 동서 약 30m, 높이 약 6m이다. 왕릉은 훌륭한 돌다루기기술로 건설되였다.

벽화는 무덤의 돌벽우에 직접 그렸다. 왕이 정사를 보는 장면, 시녀들을 거느린 왕비와 왕의 호위병들, 왕의 행차행렬과 의장대, 수박희와 음악무용장면 등을 형상한 무덤벽화는 고구려화가들의 훌륭한 예술적재능과 고구려시기의 문화와 생활풍습 등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무덤벽화는 1 60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변색되지 않고 잘 보존되여있다. 고국원왕릉의 벽화는 2004년 7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조선건축술을 대표하는 묘향산의 보현사

11 세기초 조선의 건축술을 대표하는 묘향산 보현사는 이름난 절간의 하나이다. 1042 년에 처음 세워진 후 여러 차례 개축되였는데 지금의 기본건물은 1441 년~1775 년사이에 고쳐지은것이다. 보현사는 당시 24 채의 건물과 탑들로 이루어져있었다. 그중에서도 절간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장중함과 화려함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대웅전은 잘 다듬은 화강석으로 정연하게 면을 맞추어 쌓은 밀단(높이 약 1.5m)우에 세운 정면 20.55m, 측면 10.7m 의 합각집이다. 대웅전에는 전면에 걸쳐 화려한 비단무늬를 배합한 금단청을 입혔으며 건물의 모든 부재에는 단청무늬들과 꽃과 새, 부처 등의 단청그림으로 가득 채웠다. 보현사 기본구역에는 대웅전외에도 만세루, 관음전, 조계문, 해탈문, 천왕문과 4 각 9 층탑, 8 각 13 층탑 등 여러 유적유물들이 있다. 관음전 동남쪽에는 고려의 《팔만대장경》보존고가 있다. 향산천에 수직된 남북축선을 따라 보현사의 절간건물들과 탑들이 쭉 늘어선 모습은 묘향산의 자연풍치와 조화되여 황홀한 절경을 이루고있으며 하여 오늘 수많은 외국의 관광객들이 묘향산을 즐겨 찾군 한다.

상식: 동방에서 제일 큰 돌탑-미륵사탑

조선의 미륵사탑은 전라북도 익산군 룡화산기슭 미륵사터에 있는데 7세기 전반기에 세운 돌탑이다. 지금은 력사의 흐름속에 웃부분이 마사지고 6층까지 남아있는데 그 높이는 14.24m이다. 탑의 본래의 높이는 약 23m(9층)이다. 옛 문헌 《동국여지승람》에는 이 탑이 동방에서 제일 큰 돌탑이라고 씌여있다. 탑은 한단의 널직한 밀단과 9층의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져있다. 밀단의 네모리에서는 대각선방향으로 한마리씩의 돌사자가 놓이고 네면 복판에는 각각 계단이 놓여있다.

이 미륵사탑은 7세기 전반까지의 돌탑가운데서 제일 큰 탑으로 동방 력사에 기록되여있다.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다보탑과 석가탑은 불국사(경상북도 경주)의 앞뜰에 동서로 나란히 서있는 쌍탑이다. 다보탑은 잘 다듬은 260개의 백색화강암석재를 기묘하게 다듬어 만든 독특한 형식의 건축물이다. 10여m의 높이를 가진 이 탑은 2층의 기단과 3층의 탑몸 그리고 탑머리의 6개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다보탑이 형태가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게 건설된 녀성적인 탑이라면 석가탑은 간명하면서도 강한 직선적효과를 강조한 남성적인 탑이다. 높이가 8m정도 되는 석가탑은 2층의 기단과 3층의 탑몸, 탑머리의 6개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탑의 2층탑몸에서 세계에서 오랜 목판인쇄물의 하나인 다라니경이 발견되였다. 천수백년이 지나도록 변치 않고 그대로 보존되여온 석가탑은 다보탑과 함께 기발한 형태구상과 높은 조형예술적 형상수준을 과시하는 조선민족의 대표적인 건축유산의 하나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다보탑과 석가탑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개성남대문

개성남대문은 개성시 북안동에 있는 옛성문이다. 1391년-1393년에 세우고 1899년에 보수하였다. 개성남대문은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쌓은 장방형평면의 축대와 그우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졌다. 축대우에 세운 문루는 정면 13.63m, 측면 7.96m이다. 기둥은 돌기둥우에 나무기둥을 이어 세웠다. 문루의 널마루는 가운데 한간에만 깔고 내부는 전부 통천정으로 하여 집안을 시원하게 하였다. 지붕은 겹처마의 합각지붕으로서 룡마루, 박공마루, 추녀마루, 지붕면이 모두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었다. 문루에는 은근하면서도 무게있는 모루단청을 입혔다. 개성남대문 문루에는 유명한 연복사종이 있다.

개성남대문은 조선봉건왕조초기에 건설된 개성 내성의 성문의 하나로서 2013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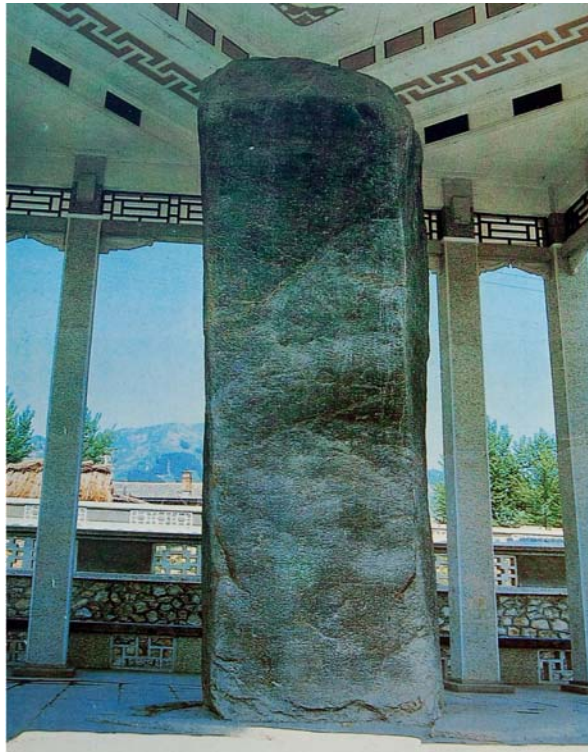
상식: 성문건축의 대표작- 평양의 대동문

대동문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대동강기슭에 있는 고구려평양성의 동쪽 성문이다. 6세기중엽 고구려수도 평양성 내성의 동문으로 처음으로 세워진 대동문은 고구려초시기인 947년과 조선봉건왕조초기인 1392년 이후 1635년에 고쳐지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후 인차 원상복구되였다. 대동문은 화강석을 다듬어 쌓은 정교한 축대와 그우에 세워진 웅장한 문루로 구성되였다. 문의 높이는 19m, 축대의 규모는 26.3m, 넓이는 14.25m, 높이는 6.5m이며 2층문루는 합각지붕이다. 이 문은 조선인민의 높은 건축술을 보여주는 성문건축의 대표작이다.

중세 최대의 돌비석-광개토왕릉비

414년에 광개토왕(통치기간 391년-412년)의 업적을 찬양하여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인 국내성(중국 길림성 집안시)의 릉부근에 세운 비석이다. 이 비석은 높이가 6.34m, 사방 1.43-1.9m의 4각추로 된 중세 최대의 돌비석으로서 세상사람들의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비문은 약 1 800자로 씌여있고 내용은 크게 3개부분으로 되여있다. 첫부분에서는 시조왕이 고구려를 건국한 내용과 그후 력대왕들의 계승관계, 광개토왕의 공적에 대한 총평, 릉의 축조와 릉비건립의 목적과 관련한 내용을 새겼다. 둘째부분에서는 광개토왕의 공적을 년대별, 사건별로 서술하였으며 이 시기에 있었던 사변적인 사실들을 기록하였다. 셋째부분에서는 왕릉관리와 관련한 규범들을 새겼다.

비문은 네모가 방정한 구도속에 예서체로 소박하면서도 엄정하게 씌여졌다. 비문의 문장과 글씨에 대하여 력사가들은 《비문이 간결하고 소탕하여 최고급의 력사책의 필법과 같다》,《어느 글자나 다 방정엄격하고 질박순수하니 진실로 동방제일의 보배》, 《웅건한 글씨는 창해도 내리누를듯이 장중하다》등으로 찬양하였다.

4. 미술유산

세계의 재부-고구려무덤벽화

2003년 7월 고구려벽화무덤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고구려벽화무덤은 동명왕릉, 덕흥리벽화무덤, 약수리벽화무덤 등 현대까지 알려진것이 총 100여기이상이며 그것은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조선서북부일대에 많이 분포되여있다. 고구려무덤들은 조선력사에 존재한 첫 봉건국가였던 고구려(B.C.277년-A.D.668년)시기에 생겨난것인데 인물풍속도무덤(대표작-고국원왕무덤), 인물풍속도 및 사신도무덤, 사신도무덤(대표작-강서세무덤) 등으로 구분한다. 고구려벽화무덤은 그 뛰여난 건축술과 높은 회화술로 하여 력사문화적가치가 국제적으로 공인되게 되였다.

2003년 7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세계유산위원회 제28차회의에서는 조선의 동명왕릉, 덕흥리벽화무덤, 약수리벽화무덤 등 총 63기의 고구려벽화무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세계유산위원회의 한 성원은《고구려벽화무덤은 조선의 재부일뿐아니라 세계의 재부이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보존관리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05년 4월 고구려벽화무덤을 소개하는 기록영화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동양미술의 걸작-법륭사의 금당벽화

동양미술의 3대걸작의 하나인 일본 나라현 법륭사의 금당벽화는 고구려의 유명한 화가 담징이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있다. 고대일본의 최고미술작품인 법륭사의 금당벽화가 고구려사람에 의하여 창조되였다는것은 조선민족의 예술적재능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잘 보여준다. 610년 일본에 초빙되여간 고구려의 담징이 그린 이 금당벽화는 12폭의 크고 작은 불교관계그림과 천정밑 20개의 작은 벽면에 2개씩 그린 비천그림으로 그려져있다. 불교교리를 선전하는 모습을 형상한 6편의 아미타여래상은 그 구도가 째이고 인물들의 성격이 잘 묘사되여있다. 법륭사의 벽화들은 연두색, 군청색, 연한 붉은색 등을 칠한 채색그림이다. 서양학자가 이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것은 동방미술의 보물이라고 찬탄하였다고 한다. 오랜 세월이 흘러 금당벽화가 퇴색되여 일본에서는 일류급화가들을 동원하여 다시 복원,보호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였으나 담징이 그린 원래 모습은 나타나지 못하였으며 세월이 지나면 벽화가 아주 현실세계에서 사라질것이라고 하면서 아쉬워한다고 한다. 법륭사의 금당벽화는 형상수법이 독특하고 색갈이 선명한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있다.

상식: 일본땅에 명성을 떨친 담징

담징(579 년-631 년)은 고구려의 중으로서 일본에 가서 법륭사의 금당벽화를 그린 재능있는 화가이며 불교경전과 종이, 물감, 먹, 물방아 만드는 기술을 일본에 보급한 학자이며 기술자이기도 하다. 담징이 왜땅에 종이와 먹, 제지기술을 전한것은 그가 고대일본에 제지업과 서사활동에 커다란 공헌을 한것으로 된다. 담징에 의하여 보급되기 시작한 제지업은 고구려출신들로 무어진 기부미화사집단이 만든 황지(누런종이)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였다.

발해의 높은 조각술을 보여주는-상경돌등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룡천부의 제2절터(중국 흑룡강성 녕안시)에 있는 이 돌등은 원래 높이가 6.3m로서 검푸른 용암을 마치 나무다루듯이 정교하게 다듬어 만들었다.

상경돌등은 조선사람들의 훌륭한 건축술을 보여주는 유적으로써 그 구성이 독특하고 모양이 우아하다. 돌등의 불집은 마치 나무로 만든 옹근 8각정자를 그대로 옮겨놓은듯하며 돌등의 각 부분은 밑으로부터 우로 오르면서 그 크기를 점차 차례줄임하여 매우 조화로와 보인다.

또한 탐탁한 밑부분과 개방적인 웃부분은 서로 마주 세워놓아 훌륭한 대조를 이루고있다. 상경돌등은 8각형요소들의 적용, 배부른 기둥, 축도기준 등을 통하여 고구려건축술의 계승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준다. 우수한 건축술과 조각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경돌등은 동방 여러 나라 돌등가운데서 가장 오래고 우수한 큰 돌등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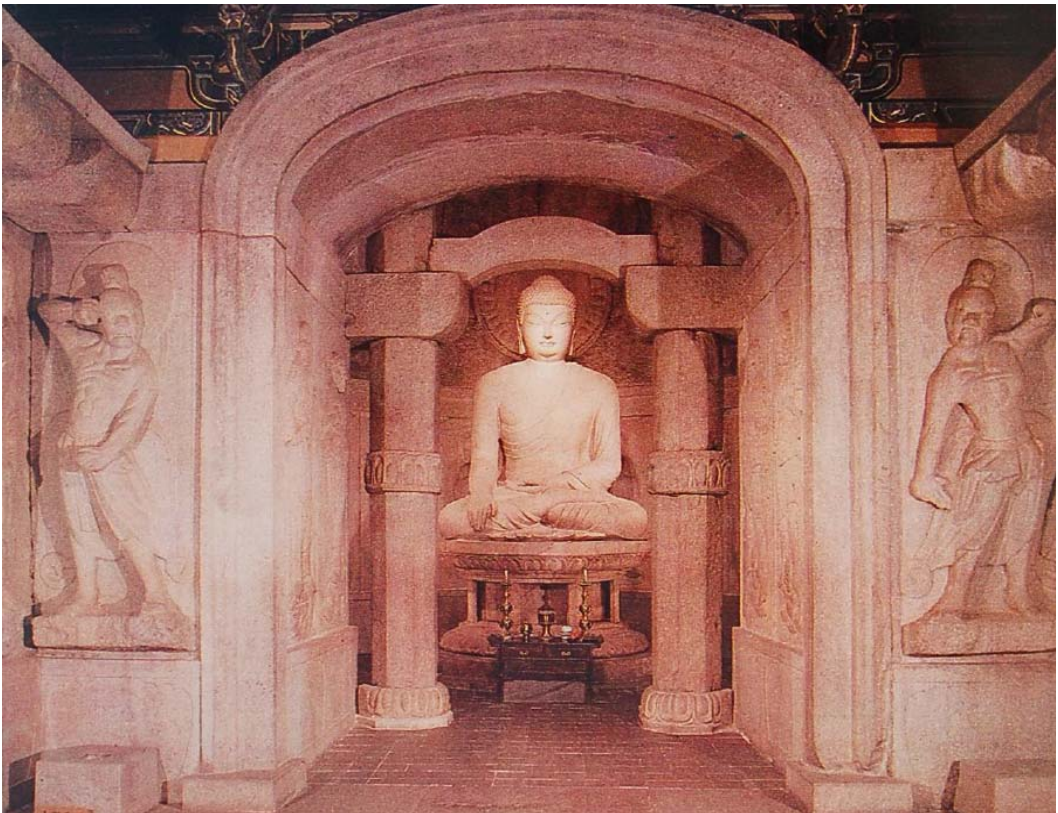
동방미술의 3대걸작의 하나, 석굴암조각상들

동방미술의 3대걸작은 신라의 경주석굴암과 일본의 법륭사 금당벽화, 중국의 운강석굴암이다.

석굴암은 조선에서 제일 큰 석굴형식의 불교절간이다. 751년 불국사를 고쳐지을 때 건설되였다.

석굴암은 토함산중턱에 동쪽을 향하여 위치하고있는데 조선동해에서 아침해가 솟을 때 그 해살이 석굴암으로 흘러들어 굴복판에 있는 큰 돌부처(석가여래)의 이마가운데 박은 《백호》를 비쳐 그것이 반사되면서 굴안이 신비한 세계처럼 보인다. 구조상으로 볼 때 석굴암은 산중턱에 화강암으로 돌칸을 꾸린 다음 그우에 흙을 덮어 만든 고구려의 돌칸흙무덤형식이다.

석굴암에는 여러개의 불상조각들이 있다. 조각상들은 그 기교가 매우 세련되고 다양한 주제들을 형상하고있으며 중심불상인 석가여래상을 중심으로 통일되여있다.

이 불상조각들은 동양에서 가장 으뜸가는 불교미술조각작품의 하나로 평가되고있다.

중세 야외조각을 대표하는 돌조각상들

14세기말에 제작된 개성 경효왕(공민왕)의 돌조각상들은 조선의 중세야외조각을 대표하는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고있다.

경효왕(공민왕)릉은 2개의 무덤무지, 높고 낮은 계단들과 크고작은 수많은 돌조각 등 그 시설전체가 주위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있다. 특히 경효왕(공민왕)릉의 돌조각들은 대범하면서도 생동한 조각수법상의 특징을 띠고있는데 그중에서 무인상은 름름하고 무게있게 잘 형상되여 이채를 띠고있다.

경효왕(공민왕)릉과 그 돌조각상들은 비록 왕의 《존엄》과 《위풍》을 뽐내기 위해 만든것이지만 여기에는 조선선조들의 예술적기교와 재능이 잘 반영되여있다.

상식: 세상에 보기 드문 불상조각-은진미륵상

은진미륵은 충청남도 론산군의 관촉사에 있는 큰 돌부처이다. 조선에 있는 불상유물들가운데서 가장 크며 동방에서도 손꼽히는 야외돌부처상이다. 높이가 20여m나 된다. 968년에 시작하여 1006년까지 38년동안 제작하였다.

은진미륵은 허리로부터 우와 아래가 각각 한개의 화강석으로 되였으며 머리우에는 개 (금동으로 만든 풍경과 구슬을 단 높은 관)을 올리였다.

특히 얼굴형상에서 풍만한 얼굴의 외형에 어울리게 눈, 코, 입 등을 립체적으로 세부까지 묘사하였다. 은진미륵은 그의 웅장함과 균형미, 조각의 미묘함으로 하여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손꼽히는 불상조각으로 인정받고있다.

가장 오랜 자수공예품-천수국수장

불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천수국》이라는 환상의 세계를 형상한 손수예품이다. 일본 나라현 중궁사에 보존되여있다. 622년 고구려의 화가 가서일을 비롯한 조선의 화가들이 이 수예품의 밑그림을 그렸다.

수예품은 그 형상에서 고구려사람들의 영향하에 제작되였다는것이 대번에 알리도록 되여있다.

수예품의 그림들은 같은 시기의 고구려벽화무덤들인 강서세무덤벽화, 룡산리 1호, 9호무덤벽화의 수법과 양식을 그대로 옮겨놓은것이며 인물들의 옷차림, 련꽃과 구름무늬 등은 꼭 같다.

수예품은 당시 조선의 발전된 방직및 염색술, 회화 및 자수공예분야 나아가서 그것이 일본의 고대문화에 준 영향을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높은 세공술을 보여주는 걸작품-신라금관

신라금관은 빈틈없는 균형과 아름다운 형태, 순군판의 판금색과 굽은 구슬의 연한 푸른색과의 조화, 그것들의 눈부신 반사, 세밀한 장식들로 하여 조선의 중세 귀금속공예술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주고있다. 신라금관에서 품위있게 치장한 외관과 아담하고 장엄하게 치장한 내관 여러개와 꽃장식, 굽은 구슬, 작은 흔들림장식물 등은 서로 잘 어울려 멋드러지게 보인다. 금관은 높이 44.4m, 직경은 18.5m로서 외관과 내관으로 구성되였다.

신라의 귀금속공예가들은 외관을 얇은 순금판을 오려서 만들고 띠모양의 둥근테우에 5개의 꽃장식대를 세웠으며 대와 꽃가지의 가장자리에 점선무늬를 돌렸다. 그리고 정면에는 작은 흔들림장식 보요 130개와 비취색의 많은 굽은 구슬 57개를 금실로 달아매였다.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그것들이 눈부신 빛을 내면서 은근한 소리까지 내므로 금관의 현란함을 돋구어주었다.

내관도 얇은 순금판으로 만들었는데 삼각모양으로 된 책 (모자의 일종)의 량쪽에는 약간 뒤로 제껴진 2개의 긴 새날개모양장식이 붙어있다. 새날개모양장식은 넝쿨무늬를 뚫어새긴것인데 머리칼같이 가는 금실로 꿰맨 동그란 얇은 금판(보요)200여개가 가득 매달려있다.

따라서 신라금관은 세계적으로 중세 귀금속공예품가운데서 제일가는 걸작품의 하나로 평가되고있다.

외국인들이 높이 평가한 발해의 자기

고구려도자공예의 우수한 전통을 이어 높이 발전한 발해에서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자기를 창조하였는데 그 질이 좋은것으로 하여 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자기는 산화철 등의 불순물이 극히 적은 찰흙에 돌성분이 있는 흙을 배합하여 그릇이나 물상을 성형한 다음 유약을 발라 1 250℃ 이상의 열에 구은것이다. 발해자기는 바탕색이 보통 희고 질이 굳으며 흡수성이 없고 유리질피막으로 되여 표면이 투명한것이 특징이다.

이 자기는 신석기시대이래 질그릇, 도기의 오랜 생산경험과 기술적진보에 의하여 이룩된 성과이다.

발해자기는 형태가 보시기, 단지, 병 등이다. 이 자기는 보드러운 바탕흙, 맑고 부드러운 은근한 색갈, 그릇표면에 고르롭게 녹아붙은 유리질피막의 유약, 쓰는데 편리하게 다듬어진 세련된 형태, 얇지만 단단한 그릇살등으로 하여 당시의 자기로서는 매우 우수하고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다.

특히 발해자기는 그릇살이 얇고 가벼우며 견고하여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졌다. 831년에 당나라에 수출된 발해자기인 자배기(자자분)는 크기가 반섬돌만이나 되지만 두께가 한치정도였으며 그 무게가 새털과 같이 가볍다고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절찬을 받았다. (《고금도서집성》 212책 번예전 41권)

발해자기는 그후 고려에 계승되여 고려자기와 같은 우수한 자기를 만들어낼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되였다.

구름모양의 자배기

종소리에서 세계 1 위인-봉덕사종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봉덕사종은 770년에 만들어진것으로서 조선민족의 뛰여난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주조술과 금속공예술이 우수할뿐아니라 조선에 현재 남아있는 종들가운데서 제일 크다.

봉덕사종의 높이는 3.33m, 아구리의 직경은 2.47m, 아구리두께는 26cm, 아구리둘레 7.75m이며 무게는 12만근(72t)이나 된다.

봉덕사종은 그 종소리가 장중하고 여운이 있는것이 특징이다. 음향학자들은 과학적연구를 진행하여 이 종의 소리가 특이한것은 두개의 소리가 서로 간섭하고 강약을 주기적으로 오래동안 반복하는 현상때문이라는것을 밝혀냈다.

서양의 종들은 하늘방향으로만 울리고 중국의 종은 지상으로만 울림이 퍼지지만 봉덕사종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상으로 함께 울리는 《천지인음향》이라는 신비로움을 가지고있다.

일본의 한 학자는 봉덕사종의 음색을 높이 평가하면서 거기에 비해볼때 미국의 《자유의 종》이나 로씨야의 《짜리종》은 음색이 그만 못하고 여운도 없다고 하였다.

조선의 봉덕사종소리는 사방으로 다 퍼지기때문에 그 음향이 독특하고 개인날 밤에는 100 리(40km)밖에서도 그 소리를 능히 들을수 있다고 한다.

세계 중세 도자기공예에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하는 고려자기

고구려의 도자기전통을 계승하여 발전한 고려시기(918년-1392년)의 자기공예는 높은 예술성으로 세계중세도자공예사상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고려시기의 여러가지 색갈가운데서 가장 훌륭한것은 비색인데 이 색은 비취옥같은 색갈이라는 뜻으로서 조선의 밝고 깨끗한 가을하늘빛처럼 민족적정서가 진하게 풍기는 포근하고 아름다운 록청색(푸른색)이다.

고려자기의 문양은 무늬박이수법(상감수법)으로 원앙새와 물소리, 구름과 학, 꽃과 나비, 대나무와 소나무를 섬세하고 다양하게 새겨 민족적인 공예미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고려자기의 문양은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동식물의 미를 살려 자기의 모양을 만듦으로써 그의 예술성을 풍부히 하고 민족적정서를 더욱 풍만하게 하였다.

특출한 색과 문양, 참신한 형태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려청자는 그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하여 세계적인 보물로 간주되고있다.

상식: 《천하의 명물 》-고려의 비단, 자기, 종이

고려시기 특히 11세기에 대외무역이 전례없이 발전하였다. 고려와의 무역을 제일 활발히 한 나라는 송나라였다. 두 나라의 상인들이 많은 물건을 배에 싣고 자주 오가며 무역을 하였다. 그때 송나라에 수출한 고려의 비단과 자기, 종이와 먹, 부채와 인삼들은 《고려비단》,《고려자기》, 《고려종이》 등으로 불리우며 《천하의 명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그것들은 송나라에서 다시 중앙아시아와 남방, 서방의 여러 나라들에 재수출되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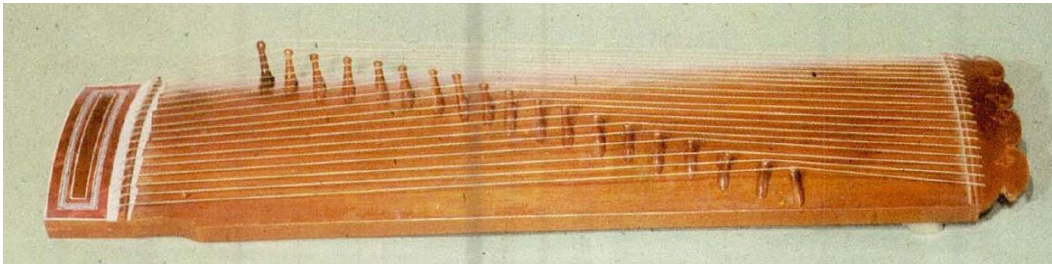
녀진과 거란, 일본과의 무역도 활발하였다. 이 시기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는 송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사신과 상인들이 그칠사이없이 찾아들었으며 외국인 숙소였던 개경의 오빈관, 영빈관, 청하관 등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차넘치였다.

5. 민속유산

특색있는 민족악기 가야금

가야금은 조선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민족악기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여러개의 줄을 가진 뜯음줄악기로서 6세기초엽 가야국의 음악가 우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속을 파낸 오동나무를 울림통으로 하고 그 우에 이동패를 세우고 12개의 줄을 매였다.

가야금은 소리가 탄력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우아하며 연주자세가 아름답고 률동적이다.

또한 구조가 간편하고 음정을 쉽게 맞출수 있으며 주법이 다양하고 배우기가 쉬운 악기이다.

상식: 고조선의 발전된 악기-공후

세상에서 남먼저 나라를 세운 고조선사람들은 일찍부터 공후와 같은 발전된 다현악기들을 만들어냈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음악생활에 널리 리용하였다. 옛 문헌기록들에 의하면 공후에는 수공후, 와공후, 봉수공후, 소공후들이 있었는데 그중 수공후와 소공후가 제일 많이 쓰이던 악기였다. 수공후는 봉수공후와 함께 세워놓고 연주하는 큰 공후로서 줄은 모두 21 줄이다. 와공후는 눕혀놓고 연주하는 악기인데 여러가지 형태의 공후가운데서 음량이 제일 풍부하고 주법도 다양하였다. 고조선의 수공후는 당시 조선에서뿐아니라 이웃나라들에도 전파된 악기였다. 고대중국에서는 수공후를 《호공후》라고 하였는데 후한의 통치자였던 령제가 이 악기를 어찌나 좋아하였던지 당시 신하들속에서는 임금이 고조선의 악기를 좋아하면 신하도 그를 따르게 된다고까지 하였다. 공후는 백제에도 널리 퍼져 기본악기의 하나로 되였는데 그것이 일본에 전해져 《백제금》이라는 이름으로 오늘까지도 일본의 고대박물관인 쇼쇼잉 (정창원)에 유물로 보존되여있다.

조선민족체육-씨름

씨름은 조선사람들이 오랜 세월의 로동생활과정에 창조하고 즐겨한 민족체육이다. 조선씨름은 두 사람이 마주서서 다리에 낀 살바나 허리에 맨 띠를 서로 잡고 넘어뜨리기를 겨루는 체육종목이다.

경기는 몸무게급으로 할수도 있고 무차별급으로 할수도 있으며 3회2승으로 진행한다. 씨름수법에는 호미걸이, 안걸이, 빗장걸이, 무릎치기, 당기기, 배지기, 뒤집기 등 여러가지 기술수법들이 있다.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이 농사일의 쉴참에 밭머리나 강가의 모래판, 또는 잔디밭에서 진행하군 하던 씨름은 승부가 명백하고 조건과 장소, 시간에 제한없이 어디에서나 쉽게 할수 있는 대중운동으로서 사람들에게 힘과 인내력, 용감성과 투지를 키워주는 좋은 운동이다.

조선에서는 해마다 전국의 커다란 관심속에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지난 세기 50년대와 60년대에 세계적인 프로레스링 왕자로 이름떨친 력도산(조선사람 김신락)도 씨름으로부터 체육계에 발을 들여놓았던 당시 유명한 씨름선수였다.

조선의 정통무도-태권도

태권도는 강한 정신수양과 육체적훈련을 통하여 단련된 손과 발, 신체의 모든 부분들을 활용하여 재치있고 날랜 동작으로 공격과 방어를 할수 있는 조선의 정통무도이다.

태권도는 조선에서 고대시기부터 전해온 격술들인 택견과 수박에서 유래되였다. 거기에 일련의 다른 권법들의 좋은 점들이 도입되여 현대체육의 한 종목으로 되였다.

《태권도》라는 이름은 1955년에 세상에 공포되였다. 이때부터 점차 조선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 여러 나라들에 퍼지게 되였으며 1966년 3월에는 카나다에서 국제태권도련맹이 창립되였다.

태권도는 지난 수십여년동안 130여개 나라들에 보급되였으며 그 애호가대렬이 오늘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1974년부터 세계적인 범위에서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조선의 종합적인 무술도서-《무예도보통지》

《무예도보통지》는 2016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으로 등록되였다.

고전은 세계의 130여개 나라들에 널리 보급일반화된 태권도의 력사적뿌리인 택견을 비롯한 조선민족의 전통무술과 함께 주변나라들의 무술동작들을 종합체계화 한 옛 무술도서이다.

조선의 민족고전인 이 책은 조선의 무술력사와 동방의 무술력사를 연구하는데서 의의가 있는 도서이다.

《무예도보통지》는 문자그대로 무예(무술)를 그림으로 해설한 책으로서 조선봉건왕조 22대왕인 정조(통치기간 1777년-1800년)의 지시로 편찬되고 정조가 서문을 쓴 《어찬》(임금이 직접 관여하여 만든 책)도서이다.

1790년 4월에 목판인쇄본으로 간행된 도서는 기재무술과 맨몸무술로 구성된 조선의 전통무술동작들을 위주로 하면서 주변나라들의 무술동작들에 대해서도 그림과 해설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목판인쇄본인 《무예도보통지》는 무예동작해설에서 그림을 안받침한것으로 하여 미술사적으로도 의의가 크다. 이 민족고전은 1952년에 평안도지역에서 발굴되여 국립중앙도서관(당시)에 기증되였으며 현재는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 보존되여있다.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총회 제39차회의에서는 조선의 민족고전 《무예도보통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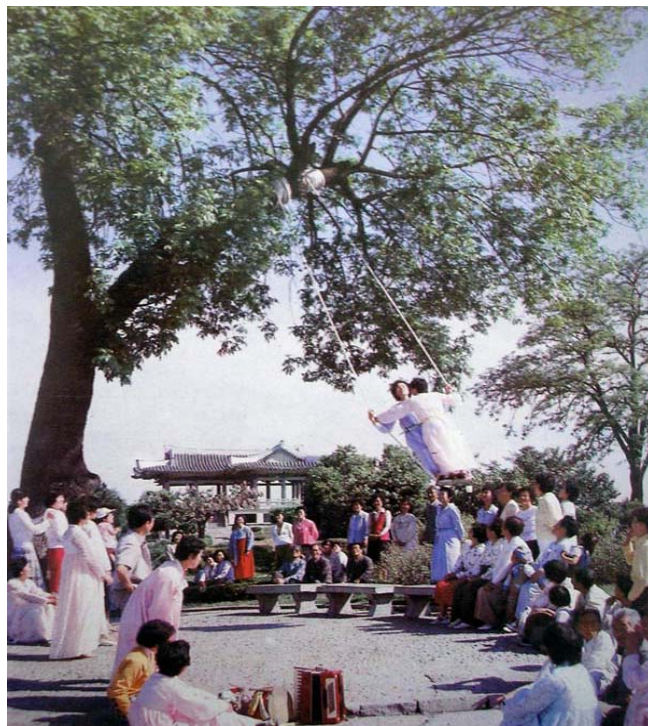
민속놀이-그네뛰기

그네뛰기는 오랜 옛날부터 조선녀성들이 즐기는 민속놀이의 하나로서 봄과 가을에 널리 진행되여왔다.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기에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그네뛰기가 널리 진행되였는데 그중에서도 평양의 그네놀이는 특별히 유명하였다. 당시에 그네줄은 보통 정자나무가지에 매였으며 부드러운 천으로 안전손목띠를 매고 디디개를 얹어서 두발이 편히 놓이게 함으로써 그네뛰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구르고 챌수 있게 하였다.

초기에는 그네를 주로 굵은 나무가지에 매고 뛴것만큼 앞나무가지(또는 꽃가지)를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발로 차거나 입으로 무는 방법 또는 방울줄을 높이 달아매고 그것을 점점 높여가면서 최고높이를 재는 방법으로 승부를 갈랐다.

그후에는 디디개밑에 눈금을 박은 줄을 매달아놓고 그네줄이 멎었던 상태에서부터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를 재는 방법으로 승부를 갈랐다. 이처럼 민속놀이의 하나로 진행되여 오던 그네뛰기는 그의 체육적가치로 하여 녀성들의 몸단련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민족체육종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해마다 전국적인 체육경기들에서 그네뛰기를 비롯한 민족체육경기들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독특한 조선민족옷

지혜롭고 슬기로운 조선사람들은 머나먼 태고적부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입는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조선사람의 생활감정에 맞는 독특한 민족옷을 창조하였다.

조선민족옷은 그 형태와 무늬, 색갈 등이 아름답고 고상한것으로 하여 일찍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에 널리 알려졌다.

남자옷차림으로는 웃옷, 아래옷, 겉옷이 있다. 웃옷에는 겉에 입는 저고리, 등거리와 속에 입는 속적삼이 있고 아래옷에는 바지와 잠뱅이가 있었다. 겉옷에는 웃몸만 덮는 짧은 겉옷과 몸의 아래우를 덮는 긴 덧옷이 있다.

녀자옷차림으로는 웃옷과 아래옷, 겉옷, 있는데 웃옷에는 저고리와 속적삼이 있다. 녀자저고리는 녀성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아름답고 다양한 색갈과 여러가지 장식을 조화롭게 배합하여 곱게 꾸며진것이 특징이다. 아래옷에는 바지와 치마가 있었는데 치마는 저고리와 함께 조선녀자옷의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옷이다.

세계에 자랑할만한－조선음식

조선민족은 세계에 자랑할만한 자기의 전통음식들을 가지고있다. 조선음식은 맛과 냄새, 색갈이 독특하고 모양이 섬세하다.

조선민족음식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만드는 원리가 과학적이며 약리학적가치도 높다.

조선음식에는 숭어국, 불고기, 록두지짐 등 맛과 영양가가 높은 여러가지 음식과 료리들도 있다.

감칠맛이 독특한－평양랭면

평양랭면은 조선사람들이 예로부터 즐겨 먹어온 고유한 민족음식으로써 그 맛이 하도 좋아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평양랭면은 메밀가루를 기본원료로 한다. 메밀은 사람의 몸에 좋은 영양성분이 많은 장수식품이다. 평양랭면은 메밀가루로 국수사리를 말아 그 우에 김치, 고기, 닭알, 배, 오이 등을 꾸미로 얹고 시원하고 새큼한 육수를 부어 만든다.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동치미국물을 많이 리용하였다. 평양랭면은 발이 질기고 국물이 시원하고 달며 새큼한 맛이 잘 어울리여 입맛을 감칠게 하는것이 특징이다.

평양랭면은 조선사람들뿐만아니라 조선을 찾는 외국인들도 즐겨먹는 맛좋은 민족음식이다.

영양가높은-신선로

신선로는 조선민족의 대표적인 전통음식으로서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은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신선로는 원래 음식을 끓이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그릇의 이름인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릇이름이 그것으로 만들어 먹는 료리이름으로 바뀌였다.

신선로는 소고기와 닭고기, 해삼, 전복, 새우, 양파, 마늘, 홍당무우, 송이버섯, 미나리, 은행, 호두, 잣 등을 따로따로 가공하여 볶음, 전, 회, 초대, 완자 등을 만들어 신선로(그릇)에 차례차례 담고 가공한 고기국물을 부어 그 자리에서 직접 끓여먹는데 그 맛이 좋고 영양학적인 효과가 매우 높다.

신선로는 말그대로 산해진미를 한그릇에 모아놓았다고 할만큼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아 오늘도 연회상이나 큰상을 비롯한 상료리로 많이 쓴다. 신선로는 2013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아시아식품축전에서 금상을 수여받았다.

세계5대건강식품-조선김치

김치는 조선민족고유의 전통음식으로서 배추, 무우를 비롯한 여러가지 남새류에 양념감과 젓갈 등을 섞어 발효시킨 남새가공식품이다.

김치는 그 맛이 독특할뿐아니라 약리학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 효과가 높은 건강음식이다.

김치는 계절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겨울김장김치를 기본으로 일러온다.

겨울김치는 겨울부터 이른봄에 이르는 기간에 인체내에 비타민C와 여러가지 무기질성분을 공급해주는 원천으로 된다. 2015년 12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는 조선의 김치담그기풍습을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으며 인터네트를 통하여 조선인민의

김치담그는 풍습을 널리 소개하면서 조선인민이 김치담그기를 통하여 가정과 집단, 사회의 단합과 화목을 도모하고있다고 밝혔다.
미국건강전문잡지 《헬스》는 조선의 김치를 세계5대건강음식의 하나로 평가하였다.
조선의 김치는 2013년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아시아식품축전에서 금상을 수여받았다.

상식: 조선의 특산 젓갈

조선사람의 식생활에서 젓갈은 기본부식물의 하나이며 조미료로 널리 리용되여온 발효식품이다.

지난 세기 말 유엔산하기구의 주최로 젓갈류 등 발효음식에 대한 학술토론회가 열리였는데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식료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조선의 각종 젓갈류에 대하여 대단한 호평을 하였다. 그들은 일치하게 단백질분해작용으로 보나 풍부한 젖산균, 비타민, 무기질로 보나 그리고 특유한 발효맛으로 보나 조선의 젓갈류는 국제적으로 뛰여난 식료품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최근 식료학자들은 세계가 서서히 《제3의 맛》시대로 옮겨가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독특한 조선불고기

불고기는 예로부터 조선인민들이 즐겨 먹어온 료리이다. 조선사람들은 불을 리용하면서부터 고기를 구워먹는 식생활방법을 적용하였다.

불고기는 영양가가 높고 그 맛과 독특한 냄새로 하여 사람들의 입맛을 당기게 한다. 불고기재료로는 주로 소고기, 오리고기 등을 쓴다.

조선불고기는 고구려의 특유한 음식이였을뿐아니라 오늘까지도 계승되고있으며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의 명물음식이다.

조선불고기는 고기에 양념을 하여 불에 구워먹는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고기를 구운 다음 소금이나 여러가지 조미료를 뿌리거나 찍어 먹지만 조선에서는 고기에 마늘, 참기름을 기본으로 하는 여러가지 양념감을 섞어 미리 재웠다가 숯불에 구워먹는것이 특징이다.

불고기는 구운 음식의 독특하면서도 고소한 냄새와 맛, 색갈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불고기는 오늘 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 영국, 도이췰란드, 중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에 널리 파급되였다.

3대기호식품의 하나-록두지짐

록두지짐은 조선사람들이 예로부터 즐겨 먹은 민족음식이다. 록두지짐은 껍질벗긴 록두를 물망에 갈아 고기, 남새 등을 섞어 지짐판에 지진다. 록두지짐은 맛이 좋을뿐아니라 영양가가 높아 건강식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록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비타민 A,B,C가 골고루 들어있어 리뇨작용과 해독작용에 좋고 피부를 맑게 하고 비장의 기능을 촉진하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해준다. 의학적으로도 록두에 독성분을 인체밖으로 배출하고 물질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 있기때문에 방사선을 비롯한 각종 오염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것이 증명되였다.

1980년대이후 국제적으로도 록두지짐은 불고기, 김치와 함께 조선의 3대기호음식으로 평가되고있다.

상식: 조선민족이 처음으로 사용한 숟가락과 저가락

조선사람들은 약 1만여년전(신석기시대)부터 숟가락과 저가락을 식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유럽에서는 13-14세기까지도 음식을 손으로먹었으며 숟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한것은 1800년대부터라고 한다. 중국에서도 한나라(B.C.206년-A.D.220년)때에 와서야 저가락으로 밥을 먹었다고 한다.

19세기 중엽 중국 상해에 와있던 도이칠란드상인 오페르트가 조선에 여러번 와보고 《조선사람들은 중국인과 같이 그릇을 입에 대고 그릇속의 음식을 저가락으로 입에 끌어넣는 식이 아니라 숟가락으로 음식을 담아먹는데 그 식사모양이 중국보다도 훨씬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조선사람들이 숟가락을 즐겨썼으므로 외국의 력사학자들은 조선민족을 《숟가락민족》이라고까지 불렀다.

맛좋고 빛갈고운-조선장

장은 조선사람들이 즐겨 리용하는 독특한 기초식품이다. 서양사람들이 빠다를 즐겨먹는것처럼 조선사람들에게는 장이 없어서는 안될 기본기초식품이다. 장은 단백질, 농마, 소금 등을 원료료 하여 만든 발효가공품이다.

장은 주로 콩을 주원료로 하여 만드는데 콩의 원산지인 조선에서는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장을 담그어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장은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다.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히 들어있으며 불포화지방인 리놀산과 리놀렌산이 많이 있어 피속의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콩으로 만든 장에는 사람의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성분들, 례하면 몸안에서 잘 소화되는 완전단백질, 필수아미노산, 각종 당질과 광물질, 유기산, 비타민 B_1, B_2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장에는 된장, 간장, 고추장이 있다.

조선장은 조선에만 있는 독특한것으로, 맛좋고 빛갈고운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에 널리 알려졌다.

조선식주택건물의 독특한 지붕

조선식건물에서 특이한것은 지붕이다.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때부터 기와를 이은 여러가지 류형의 고유한 조선식지붕이 있었다. 그것은 고구려벽화, 삼국시기의 건축물, 벽돌에 새긴 건축물의 무늬들을 통하여 확증할수 있다.

삼국시기이후 지붕건축양식이 더욱 세련되고 지붕장식이 발전하였으며 지붕면의 표면재료인 기와의 품질도 더욱 개선되였다. 조선식지붕은 그 모양에 따라 배지붕, 우진각지붕, 합각지붕 등으로 나눈다.

조선식지붕에는 여러 가지의 장식을 하였다. 룡마루량끝에는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기, 발해및 후기신라시기에는 치미로,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추두와 룡두로 장식을 하였으며 특히 조선봉건왕조때에는 추녀마루에 여러가지 잡상을 놓았다. 기와도 장식기와를 많이 썼다. 현대조선식건축에서 지붕장식물들은 현시기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게 현대적인 주제들로 한다.

1986년 10월 조선에 왔던 오스트리아의 한 건축학교수는 인민대학습당이 웅장하고 우아한 건축조형미에 매혹되여 감상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

《광장에 서서 량옆에 서있는 서양식건물과 주석단뒤에 서있는 조선식건물인 인민대학습당을 대비해보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었다. 조선식건물이 선녀같다면 서양식건물은 시골처녀와 같다.》

량천사 대웅전

인민대학습당

조선식주택건물의 고유한 난방

《조선구들(온돌)》은 조선식주택건물의 고유한 난방시설이다. 방덥히기 수단으로서의 구들은 이미 고조선시기에 발생하여 오늘까지도 리용되고있다. 재래식 구들의 구조는 부뚜막, 온돌고래, 온돌바닥, 굴뚝으로 되여있다.

지난 시기에는 부뚜막에 불을 피워 방안의 온돌바닥을 덥혔는데 현대에 와서는 화력발전소나 보이라에서 나오는 온수를 난방관에 통과시켜 온돌바닥을 덥힌다. 방안에서 신을 벗고 생활하는 조선사람들의 생활풍습도 이 구들에서 기인된것이다.

오늘 조선구들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그 기술이 급속히 보급되고있다. 도이췰란드,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조선의 구들을 모방한 전기기구들이 연구제작되고있다.

도이췰란드에서는 5개의 기업이 구들고래를 리용한 온수순환난방체계와 전기기구들을 개발하고있으며 일본에서는 15개의 대기업이 밤에만 전기를 리용하여 구들을 덥히는 전기기구들을 개발하여 유럽에 대대적으로 진출시키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상품명으로 《구들》, 또는 《온돌》이라는 말을 쓰고 사전에까지 올리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백화점에서는 《미니온돌》(소형온돌)이라는 이름을 붙인 소형전기담요를 팔고있으며 영국의 《옥스포드사전》에는 《온돌》이라는 단어가 올라있다.

고구려의 온돌시설(정릉사터)

세계가 본 조선민족의 문화유산들

집 필: 교수 박사 김은택
편 집: 리순영
장 정: 안혁철
낸 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 행: 주체 107(2018)년 8 월

ㄱ-188350103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http://www.korean-books.com.kp